국제유가, 3% 급락…4개월만에 최저

OPEC+, 감산 단계적 중단 WTI선물, 배럴당 74.22달러

국제유가가 3일(현지시각) 뉴욕시 마감했다. 장에서 3% 넘게 급락하며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미끄러졌다.

지난 2일 산유국 연합체인 석유수출 국기구(OPEC)와 동맹국들인 석유수 출국기구플러스(OPEC+)가 정례회 의에서 10월부터 1년에 걸쳐 자발적 감산의 단계적 중단을 발표하면서 유 가를끌어내렸다.

OPEC+는 2025년 말까지 360만 배 럴의 감산 연장에 합의했지만, 사우 디아라비아 등 8개 핵심 회원국의 자 발적 감산은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완 화한다는 여지를 남겼다.

OPEC+는 다만 자발적 감산의 계획 된 단계적 폐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 라질것이며번복될수있다고밝혔다.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완화 움 직임에 뉴욕상업거래소(NYMEX) 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 (WTI) 선물은 2.77달러(3.6%) 하락

노란우산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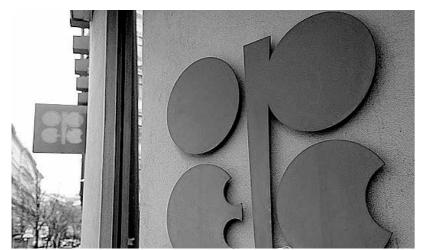
한배럴당74.22달러를기록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 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2.75달러 (3.39%) 하락한 배럴당 78.36달러에

골드만삭스는 최근 글로벌 원유 재 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OPEC+ 회원국들의 자발적 감산 단계적 중단 이 유가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TD증권의 원자재 전략가인 라이인 맥케이도투자자노트에서 "시장은 10 월부터 시작되는 자발적 감산의 종료 를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공급위험 완화는 이미 가격과 스프레드에 부담 을주고있으며, OPEC의합의는그흐 름을거의 바꾸지 못했다"고말했다.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드 루 리포우 사장은 이번 결정이 원유 가격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 다. 그는 OPEC+가 2022년 10월 이후 하루 600만 배럴의 감산을 단행함으 로써 유가 상승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 는데 감산이 없으면 유가는 배럴당 50 달러대로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이수정기자 soojunglee@



2023년 11월 30일 오스트리아 빈 소재 석유수출국기구(OPEC) 본사 건물 밖의 로고. 사진=로이터/

머스크, B200칩 구매에 12조원 쏜다

'xAI'서 연구개발 용도 사용 GPU 클러스터 규모 확대 AI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서 사용하기 위해 엔비 디아의 최신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3일(현지시각) IT 전문매체 WCCFtech, 톰스하드웨어 등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이용해 xAI가 AI 연 구개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내년 여 름까지 엔비디아 B200칩 30만 개를 구 매할것이며,이를위해최소약90억달 러(약 12조3000억 원) 이상을 지출할 것 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10만개의 H100칩으로 구성된 xAI의 수랭식 AI 훈련 클러스 터가 몇달 안으로 가동을 시작할 것"이 라며 "다음 큰 단계는 아마도 내년 여름 에 CX8 네트워킹을 갖춘 약 30만 개의 B200칩이될것"이라고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 만, WCCFtech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발표를 바탕으로 최소 9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

앞서황CEO는지난3월차세대B200 칩을 발표하면서 개당 가격이 3만~4만 달러선이 될것이라고 언급한 바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력 AI 칩인 B200은 칩은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 및

엔비디아에 따르면 기존 엔비디아의 주력 AI 칩인 'H100'과 비교해 약 4배의

공급을시작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AI 스타트업'xAI'에서 사용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AI칩 'B200'을 내년까지 30만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연산 성능을 제공하며, AI 챗봇의 답변 제공과 같은 작업에서 최대 30배 빠른 응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xAI는 내년까지 이렇게 확보한 새로 운 AI 칩을 기반으로 GPU 클러스터 규모를 확대하고, 자사의 AI 관련 제 품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한다는 방

xAI는 최근 진행한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가 180억 달러(약 24조 7000억 원)로 평가되었으며, 약60 억달러를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제품은 생성형 AI 기반챗봇인 '그록(Grok)' 뿐이지만, 구 트위터 시절부터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 를 독점함으로써 향후 AI 업계에서 성 장 가능성과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지고있다.

한편, 빅테크기업들의 AI 경쟁이 가 속되면서 이들의 엔비디아 AI 구매량 도덩달아급증하고있다.

지난 3월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는 자

사의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약 35만 개의 엔비디아 H100 칩을 사용 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총 60만 개의 H100 칩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구체적인 물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엔비디아 AI 칩 구매에 1분기에만 최소 30억 달 러 이상을 지출하면서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으로떠오른바있다.

최용석 기자 rpch@

中, 상하이·선전 등 대도시 주택시장 회복 조짐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 주택 구매자 심리 개선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상하이 와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주택 구매자 심 리가 크게 개선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회복조짐을보이고있다.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 면 지난 주말 상하이의 신규 프로젝트 에서 공급된 주택 300여 가구 중약 90% 가 판매되어 같은 개발 프로젝트의 3월 판매율을 넘어섰다.

선전의 일부 개발업체는 구매자들의 관심이 급증하자 할인 혜택을 철회하 기도했다.

두 도시 모두에서 기존 주택 판매도 회복세를 보이는 등 침체된 부동산 업 계에 몇 달 만에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 됐다.

중앙정부가지난 3년 간의 부동산 시 장 침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구제책을 내놓자 부동산 침체가 완화할 조짐을 보인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전 국적으로 200개 넘는 도시에서 주택 구매 제한과 계약금 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가 지방 단위로 확산하고

지난주에는 상하이와 선전 및 광저 우 등 대도시로 규제 완화가 확산했

CGS 인터내셔널 증권 홍콩의 중국 부 동산 리서치 책임자인 레이먼드 쳉은 "5월 중순에 발표된 강력한 정책 지원



지난달 9일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커가 건설 중인 주거 건물. 사진=AFP/

이후 시장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됐 다"면서 6월 판매량은 더 개선될 것으 로전망했다.

상하이 금융 중심지에서 지난 2일 국 영인 샹위 부동산 그룹이 진행한 프로 젝트에 많은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줄 을서기도했다.

익명의 한 중개인은 "이렇게 많은 고 객이 몰린 것은 오랜만"이라며 "질문 에 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 고말했다.

선전의국영폴리개발및홀딩스그룹 은지난1일롱강지역에있는제이드아 파트 주거 프로젝트에 제공했던 2%할 인을취소했다.

최악의 위기가 끝났다는 낙관론이 확 산하며중국개발업체들의주가도상승 세다.

중국 부동산 정보 회사 데이터에 따르 면 100대 부동산 기업의 5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3.6% 감소해 4 월의 45% 감소에 비해 완화됐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건설업체의 블룸 버그지수는 3일 거래에서 2.3% 상승했 다. 이는 4월 최저치 대비 42%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회복세는 기존 주택 시장에서 더욱뚜렷하다.

기존 주택의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판매량 기준으로 기존 주택 판매가 신 축 주택 판매량을 추월했다.

상하이 부동산 거래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상하이의 기존 주택 판매량은 한 달 동안의 일일 평균보다 50% 높게 나타났다.

선전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인 레이우 지아에 따르면 선전의 기존 주택 판매 량은 지난 주말 8% 증가해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

머스크의 X, '성인물 유통' 공식 허용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에서 성 인물을 유통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 용된다고 AP통신이 4일(이하 현지시 각)보도했다.

AP에 따르면 X는최근 X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서 "성인물의 제작과 유 통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합

의했다는 전제 아래 X를 통해 성인물 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밝혔다.

적법한 범위 안에서 성인물의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X는 "성적인 표현은 시각적으로 이뤄 지든, 문서로 이뤄지든 정당한 예술적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발 표했다.

다만, X는 아동이나 성인물에 관심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성인물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P는 "머스크에게 인수되기 전인 트위터 시절부터 성인물은 허용됐으 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전했다.

김현철 기자 rock@



사장님 지원 플랫폼